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분석과 제언

Analysis and Implication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Public Libraries in Major Cities

윤희윤 (Hee-Yoon Yoon)*

김종애 (Jong-Ae Kim)**

오선경 (Seon-Kyung Oh)***

초 록

모든 공공도서관은 장서 기반의 지식문화서비스 기관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수립해야 할 필수적 정책인 동시에 전략적 메뉴가 장서개발정책이다. 특히 시도 단위의 종합지식정보센터 및 공동보존서고로서의 법정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지역대표도서관은 최적 장서개발정책을 수립·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과 국내의 권역별 지역대표도서관 장서개발지침(안) 및 규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 선진국의 정책은 구성체계 및 내용적 측면에서 충실한 반면에 국내는 공식화된 정책문서가 없는 실무지침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모든 지역대표도서관은 장서개발의 중요성 인식, 미래지향적 사고, 전략적 판단 등을 전제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문서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원칙과 구성체계를 제언하였다.

ABSTRACT

All public libraries are collection-based knowledge and cultural service institutions. To this end,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s an essential and a strategic menu that every library should establish first. Regional central libraries should establish and apply optim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to conduct the legal duties as knowledge and information centers and cooperative preservation facilities of the cities and provinces. Thus,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in detail the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s (draft) and regulations of regional central libraries in Korea and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of metropolitan public libraries abroad. Results showed that the policies of domestic regional central libraries were simply practical guidelines while those in most developed countries were substantial in format and content. All regional central library systems should establish and documen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based on the importance of collection development, future-oriented thinking, and strategic decision. The study also suggested the basic principles and the format for this purpose.

키워드: 공공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장서개발(관리)정책, 자료수집방침
public library, regional central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management) policy,
library collection guideline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제1저자)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ongaekim@kgu.ac.kr) (교신저자)

*** 경상대학교 강사(sk2898@hanmail.net) (공동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0년 8월 23일 ■ 최종심사일자: 2020년 9월 3일 ■ 게재확정일자: 2020년 9월 3일

■ 정보관리학회지, 37(3), 51-75, 2020.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3.051>

* Copyright © 2020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유사 이래로 공공도서관은 도서 중심의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열람·대출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 왔다. 그것을 기반으로 독서촉진 활동, 문화·학습프로그램 제공, 아웃리치서비스, 주민 편의시설과 공간, 커뮤니티센터, 제3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복합문화·학습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공도서관이 운영과정에서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원칙은 최적의 장서개발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다. 장서는 도서관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동시에 본질적 정체성과 사회적 존재이유를 정당화하는 결정적 인자다. 장서가 부실하면 핵심서비스인 대출·열람 만족도가 높아질 수 없고, 장서와의 연계성이 약한 프로그램을 강조할수록 정체성이 퇴색되어 평생학습관의 이유로 전락할 것이며, 장서개발에 소홀하면 시설과 공간은 단순 영조물에 불과하고, 장서구성이 취약하면 제3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충실한 장서구성이 배제된 평생학습 지상주의, 창조공간화, 장서와 유리된 인문학 프로그램에 몰입하거나 장서의 중요성을 왜곡·위축시키는 시도가 잦아지면 도서관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장서에서 배태되는 도서관의 진언이 이념적 중립성과 공리주의에 기반을 둔 지식민주주의 광장이기 때문이다.

다시 공공도서관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장서는 상수이고 서비스, 프로그램, 시설과 공간, 사회적 장소는 변수들이다. 어떤 변수도 대체

할 수 없는 장서의 양적 확충과 질적 충실화가 도서관의 파이프와 존재감을 키우는 첩경이다. 그럼에도 국내 공공도서관에는 장서개발정책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에 탑재된 일부 정책마저 낮은 수준의 실무지침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6년 법정 기구로 신설된 지역대표도서관이 13년이 지났음에도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이 없다. 이에 주목하여 장서정책 모형을 제시한 연구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경기도청, 2015; 경북도서관, 2019a; 서울특별시, 2019). 조만간 모든 시·도에 대표도서관시스템이 완비되므로 중장기 발전계획과 함께 장서개발정책이 우선 수립·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 차원에서 본 연구는 대륙별 주요 국가의 대도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서개발정책의 구조 및 구성, 내용적 특징과 특이점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도출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내 지역대표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법정 업무인 '시·도 단위의 종합적 자료의 수집·보존'과 '지역 도서관의 자료수집 지원 및 이관자료 보존'을 위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제언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첫째, 연구방법은 사례 중심의 정성적 비교방법을 적용하였다. 사회과학분야에서 비교방법론의 테크닉으로 적용되는 통계분석과 사례연구 중에서 후자에 해당한다.

둘째, 주요 선진국은 편향성 해소를 위해 3개 대륙(북미, 유럽, 아시아)을 대상으로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은 영국과 독일, 아시아

는 일본과 대만을 분석하되 연방제 국가는 주요 주립 및 대도시 도서관, 단방제 국가는 시도립 및 대도시 도서관을 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국내는 2020년 8월 말 현재 설립 또는 지정·운영되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 중 11개 관(서울, 미추홀, 한밭, 충남, 전북도청, 광주시립, 전남도립, 경북, 경남대표, 울산, 한라)을 대상으로 장서개발정책(안) 또는 관련 규정이 있는 7개 관을 수도권(서울, 미추홀), 충청·호남권(충남, 광주시립), 영남권(경북, 울산, 경남대표)으로 구분하여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넷째, 비교분석을 위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은 홈페이지에 탑재된 공식문서, 인터넷 자료, 메일을 통한 확인과 요청 등을 통해 수집한 후 정책의 구조 및 구성, 내용적 특징과 특이점,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역대표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제언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비교대상의 역사와 문화, 시스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비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선진국 도서관은 예외 없이 장서개발정책을 수립·적용하는지, 구성체계와 특징은 무엇인지, 장서개발정책이 전무한 지역대표도서관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령 기독교와 불교의 종교적 이념, 선진국과 후진국의 국민성, 영미법과 대륙법의 체계, 한일 양국의 결혼관 등과 같이 토양과 역사, 문화와 정신, 성격과 구조가 상이하더라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은 가능하다.

1.3 선행연구 개관

국내의 대도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서

개발정책을 분석한 연구는 없다. 이에 특정 국가나 지역의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의 연구로 Osborne(2006)은 뉴질랜드의 5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서개발정책 수립 및 적용과정에서 공공자문을 통해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을 조사하였다. Douglas(2011)는 현재 장서의 특성과 출판 경향, 예산 및 고객 정보요구 변화를 반영하여 장서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 도서관의 정책, 출판 및 수서환경 변화, 예산 및 공간 변화를 반영한 장서개발정책 개정 과정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연구로 경기도청(2015)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의 정책적 근거와 실무지침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장서보존 및 서비스를 위한 대표도서관 장서개발정책안 및 공동서고 운영안을 제안하였다. 고양시(2015)는 도서관 특성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장서개발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 특성화 주제영역을 확정하고 자료선정 기준 및 예산배정을 제시하였고 분담수서 및 공동보존 방법을 모색하였다. 장덕현(2017)은 10개 공공도서관의 개관장서 구축 사례를 검토하여 장서개발정책 수립, 장서구성 기본계획 수립, 개관장서 규모 도출, 향토자료 구축 등의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장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북도서관(2019a)은 경북지역 도서관의 장서개발 가이드라인 제시와 더불어 경북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종합적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실무적 지침을 제안하였다. 서울특별시(2019)는 서울도서관과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법적 책임 및 지위적 역할에 부합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장서개발의 기본원칙, 정책적 방향, 전략적 개발, 세부지침, 제로성장정책과 제적·폐기, 공동보존서고 및 보존최적화 방안, 연계·협력방안 등을 포괄하는 서울시 장서개발 정책 모형을 개발하고 실천방안과 후속조치를 제시하였다.

2.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 정책 분석

2.1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공공도서관

2.1.1 뉴욕주립도서관(New York State Library)

뉴욕주립도서관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은 <표 1>처럼 7개 영역(서문, 일반정책, 장서수준 정의 및 주제별 상세표, 필사·특수자료 개발, 주 간행물 개발, 보존,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New York State Library, 2013). 주요 특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에 걸맞게 서문에서 뉴욕주립도서관이 연구도서관을 지향하기 위한 장서개발의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고 개정주기를 5년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일반정책은 자료유형을 23개(녹음자료, 서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학위논문, 필름과 비디오, 정부간행물, 색인·초록지,

문학작품, 가제식자료, 필사자료, 지도, 마이크로자료, 멀티버전, 악보, 뉴욕주 자료, 뉴욕주 신문, 특히, 회귀도서, 소급장서, 표준·명세서, 녹음도서와 점자자료, 시각자료)로 세분하여 수집 범위 및 절차, 예외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장서수준은 10단계, 즉 수집 제외, 최소수준(균등하지 않은 범위), 최소수준(균등한 범위), 기본정보수준(입문), 기본정보수준(상급), 기본연구 또는 기본교육지원수준, 중급연구 또는 중급교육지원수준, 상급연구 또는 상급교육지원수준, 연구수준, 망라적 수준을, 장서수준 상세표에서는 DDC를 적용하여 주류별로 '장서수준 정의'에 따른 집서수준을 제시하였다.

넷째, 가장 주목할 특성은 뉴욕주를 다루는 주제에 중점을 두어 주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주립도서관의 책임을 명시한 점이다.

2.1.2 버지니아주립도서관(The Library of Virginia)

버지니아주립도서관 장서개발·장서관리지침(Collection Development and Collection Management Guidelines)은 <표 2>처럼 6개 영역(목적, 장서접근, 장서범위, 자료선정, 장서개발 및 관리,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The Library of Virginia, 2007). 주요 특징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문화된 정책답게 목적 부분에서 주립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버지니아 강령에 제시된 주립도서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였다.

둘째, 장서범위에서 장서개발 수준을 6단계(망라적 수준, 광범위한 수준, 기본적 수준, 지원수준, 최소수준 및 수집 제외)로 구분하여 명

〈표 1〉 뉴욕주립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서문	목적과 범위 진술	- 주립도서관의 연구도서관 지향 장서개발 목적·범위, 개정주기 5년 제시
일반 정책	예산배정 방식	- 자료수집을 위한 예산배정 방식
	자료포맷	- 원칙적으로 연구도서관은 모든 포맷(종이, 마이크로, 전자)을 구입함
	핵심장서	- 주립도서관 목적 달성의 필수적인 단행본, 학술지, 전자자원 핵심리스트
	자료유형(23)	- 자료유형별(녹음자료, SW, DB, 학위논문, 필름과 비디오, 정부간행물, 색인초록지, 문학작품, 가제자료, 필사자료, 지도, 마이크로자료, 멀티버전, 악보, 뉴욕주 자료와 신문, 특허, 회귀서, 소급장서, 표준·명세서, 녹음도서와 점자자료, 시각자료) 수집 원칙, 범위와 제한, 복본, 포맷과 버전, 선택적 및 망라적 수집 여부
장서수준 정의와 주제별 상세표		- 장서수준을 10단계(수집 제외, 최소(균등과 비균등), 기본정보(입문과 상급), 기본연구 또는 기본교육지원, 중급연구 또는 중급교육지원, 상급연구 또는 상급교육지원, 연구, 망라적)로 정의하고 주제별 집서수준 제시
필사·특수자료 개발정책		- 필사자료, 회귀도서 등 특수장서 가치, 장서수준, 현재 강점, 추가 개발 영역
주 간행물 개발정책		- 뉴욕주 간행물 기탁도서관으로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위원회, 공공 단체 및 주정부 기관 간행물 수집의 책임과 수집 형태
보존정책		- 보존철학(보존의 윤리적 기반, 보존 우선순위), 보존수선(예방적 수선실무, 보존처치실무, 보존교육), 도서관자료 이용, 도서관자료 전시지침
부록		- 기증정책(수증의 범위 및 절차) / 제작정책(제작의 범위 및 기준)

〈표 2〉 버지니아주립도서관 장서개발 및 장서관리정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목적	사명과 비전	- 주립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진술
	도서관과 버지니아 강령	- 버지니아 강령에 제시된 주립도서관의 역할과 책임
장서접근		- 장서,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특수장서 및 보존기록물 접근
장서 범위	장서개발 수준	- 주립도서관 장서개발 수준을 6단계(망라적 수준, 광범위한 수준, 기본적 수준, 지원수준, 최소수준 및 수집 제외)로 제시
자료 선정	자료선정과 장서개발	- 자료선정 절차와 직원의 역할, 자료선정 참고도구, 자료 선정기준
	자료유형	- 주립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의 유형
장서개발 및 관리	일반 수집지침	- 구입·수증 우선순위, 협력 장서개발, 특수자료 수집 및 수집 제외 기준
	고문서, 필사자료, 기록물	- 공공기록물, 필사자료, 버지니아주 관련 기록물 수집·제공 책임
	도서관개발·협력국 도서관	- 도서관개발·협력국 도서관의 자료 구성 및 이용
	지도	- 필사·인쇄지도, 버지니아 관련 지도 복제본 등 수집범위와 우선순위
	신문과 정기간행물	- 신문 수집 및 마이크로필름화, 연간물 구독, 주 역사 신문·잡지 수집
	참고자료	- 주정부 참고·연구서비스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 참고자료 수집 유형
	특수자료	- 회귀본 및 귀중본 수집, 버지니아주 역사·문화 사진, 초상화, 포스터, 종이 미술작품 및 단명자료와 같은 그래픽자료 수집
	기증·제작·대체	- 기증범위와 절차, 일반자료의 선택적 제작기준, 분실 및 오·훼손 자료에 대한 대체, 복제/이미지화 범위
부록	1. 버지니아주 강령	6. LCC 분류별 선택자 지침
	2. 버지니아주 저자 자료 수집정책	7. 도서관 권리장전
	3. 버지니아주 저자 자료실 정책	8. 읽을 자유(Freedom to Read) 선언문
	4. 특수자료 개발정책	9. 볼 자유(Freedom to View) 선언문
	5. 도서관자료 평가를 위한 선정기준	

시한 점과 자료선정에서는 선정절차와 직원의 역할,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 선정기준 및 수집 자료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일반 수집지침에서는 정부기관, 주 의회 및 기타 선거구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료, 버지니아주 역사, 문화 및 계보 등 모든 측면에서의 연구를 기록하고 지원하는 자료, 버지니아주 저자가 생산한 자료, 정부기관이 생산한 자료, 도서관 권리장전, 읽을 자유 선언문, 볼 자유 선언문을 지지하는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도록 명시하였다.

넷째, 일반 수집지침과 함께 필사자료, 기록물, 지도, 신문·정기간행물, 참고자료, 특수자료의 수집범위도 명시하였다. 지도는 필사·인쇄지도, 버지니아주 관련 지도의 복제본 등 수집범위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신문·정기간행물은 수집 및 마이크로필름화, 연속간행물 구독 및 버지니아주 역사적 신문·정기간행물 수집을 기술하였다. 참고자료는 주립도서관의

역할과 수집하는 자료유형을 제시하였다. 특수자료에서는 희귀본 및 귀중본, 주의 역사·문화 사진, 초상화, 포스터, 종이 미술품 및 단명자료와 같은 그래픽자료를 포함시키고 있다.

2.1.3 보스톤공공도서관(Boston Public Library)

매사추세츠주 보스톤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은 <표 3>처럼 11개 영역(목적 및 배경, 장서 책임, 수집기준, 세계 언어, 장서 디지털화, 저명한 장서(Collections of Distinction), 연구·특수자료, 제적과 장서보존, 기증, 지적 자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Boston Public Library, 2013). 구성 및 내용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문화된 정책문서의 전형에 부합한다. 장서개발정책의 목적 및 배경, 자료선정 과정의 감독 및 지휘 책임의 주체를 명시한 점이 방증한다.

<표 3> 보스톤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목적 및 배경	- 장서개발정책의 목적 및 배경
장서 책임	- 자료선정 과정의 감독 및 지휘 책임의 주체
수집기준	- 수집을 위한 평가기준, 특수자료 및 전자자원에 대한 추가 기준
세계 언어	- 영어 외 언어로 된 자료의 수집
장서 디지털화	- 디지털화 대상자료의 선정기준
저명한 장서	- 저명한 장서(Collections of Distinction)의 식별 기준
연구·특수자료	- 연구 및 특수자료의 범위와 수집
제적 및 장서보존	- 장서 제적기준 및 처분
기증	- 기증자료 평가기준 및 관리
지적 자유	- 도서관의 지적 자유 존중
부록	- 특수자료위원회 책무, 특수자료 구입에 의한 수집·처분 과정 - 지도센터(Map Center)의 수집정책 및 권한 - 장서의 처분, 기증, 재검토 요청, 기부 지침 - 도서관 권리장전, 읽을 자유(Freedom to Read), 볼 자유(Freedom to View) 선언문

둘째, 자료수집을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영어 외의 언어로 된 자료에 대한 수집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장서수준에 대한 지침은 없다.

셋째, 보스톤공공도서관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저명한 장서에 대한 식별과 홍보를 강조하며, 가장 뛰어나고 광범위하며 유명한 장서를 대표하는 저명한 장서를 식별하는 기준을 「Library Compass: Principles of Excellence」에 근거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연구 및 특수장서의 수집범위와 수집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제적 및 장서보존 부분에서는 제적기준 및 처분에 대해 기술하고, 기증정책에서는 기증자료 평가기준 및 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다.

책임,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Toronto Public Library, 2016).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목표를 2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직원에게는 자료수집지침으로 활용하고, 이용자에게는 자료선정 결정에 관한 원칙에 친숙하도록 알리는 데 있다.

둘째, 수집자료유형, 자료선정정책을 적용하는 대상에 대한 기술과 함께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였다. 지침의 내용은 선정기준, 자료유형, 제적활동, 내용에 대한 비(非)보증, 장서접근, 기증 및 기부, 고객의 신청, 자원공유 및 상호대차서비스, 자료 재검토에 대한 지침 등이다.

셋째, 자료선정정책 설명책임의 주체를 도서관장(City Librarian)으로 명시하였다.

넷째, 자료선정정책 외에 보존, 디지털화, 콘텐츠 수집 및 지침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2.1.4 토론토공공도서관(Toronto Public Library)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도에 위치하는 토론토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정책(Materials Selection Policy)은 <표 4>와 같이 8개 영역(정책목표, 기본원칙, 정책진술, 범위, 적용, 세부지침, 설명책임,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Toronto Public Library, 2016).

2.2 영국과 독일의 대도시 공공도서관

2.2.1 버밍엄도서관(Library of Birmingham)

잉글랜드 중부에 위치하는 버밍엄도서관 아카이브·장서개발정책(Archives & Collections Development Policy)은 <표 5>처럼 10개 영역

<표 4> 토론토공공도서관 자료선정정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정책목표	- 직원을 위한 자료수집지침, 이용자에게 자료선정원칙에 대한 홍보
기본원칙	- 도서관 사명에 기반한 자료선정 기본원칙
정책진술	- 자료선정정책 및 고려사항
범위	- 수집자료의 유형
적용	- 정책의 적용대상(도서관 직원과 조직)
세부지침	- 선정기준, 자료유형, 제적, 내용 비(非)보증, 장서접근, 기증과 기부, 고객 신청, 자원공유·상호대차 등
설명책임	- 자료선정정책에 대한 설명책임 주체를 도서관장으로 명시
부록	- 참고문헌, 토론토공공도서관 사명, 캐나다도서관협회 지적자유와 도서관 성명서, 온타리오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 어린이 권리에 관한 성명서, 용어의 정의, 연락처

〈표 5〉 버밍엄도서관의 아카이브·장서개발정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서문	- 버밍엄 아카이브·장서의 성격, 지역사회 기여, 자료수집 의지 등
정책의 범위	- 정책의 적용대상, 수집 제외자료, 수집매체 유형(종이, 시청각, 사진, 전자매체 등)에 관한 명시, 관련정책(장서관리정책, 정보수집정책, 장서개발계획, 접근정책, 전시 및 대출정책, 디지털 보존정책, 디지털화 기준, 수선·보존정책)과 동의어 내지 호환되는 정책임을 명시
법률과 기준	- 버밍엄 아카이브·장서에 적용·준수하는 법령(Public Records Acts, Local Government Acts, Education Reform Act, Local Government(Records) Act 등)과 기준(National Standard for Access to Archives, Recommendations for the storage and exhibition of archival documents) 명시
수집기준	- 지리적 범위, 아카이브 평가기준 제시
기록물 생산자	- 아카이브·장서 수집에 기여하는 이해집단(시 공공기록 보관소, 버밍엄 교구 기록사무소, 지방정부 법에 따른 기부, 인종·민족적 소수자, 장애인, 자원그룹, 자선단체, 예술조직체)
비수용 자료	- 대중 접근제한 자료, 위험물질 자료, 수선 불가 손상자료, 소유권 쟁점 기록, 장서의 구성요소나 중요한 주석이 포함되지 않은 출판·인쇄자료, 아카이브가 필수적이지 않은 신문·시청각자료
수집방법	- 기증, 납본, 구입,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버밍엄도서관 이관
자료이관·폐기	- 다른 리포지터리로의 이관, 폐기
기증자 접촉	- 기증자 및 기탁자와의 접촉과 연락
정책문서 리뷰	- 정책문서 검토주기를 2년으로 명시

(서문, 정책의 범위, 법률과 기준, 수집기준, 기록물 생산자, 비수용 자료, 수집방법, 자료이관 및 폐기, 기증자 접촉, 정책문서 리뷰)으로 구성되어 있다(Library of Birmingham, 2017). 주요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서 명칭이 장서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와 대등개념으로 사용한 점이 특이하다. 그럼에도 장서관리정책, 정보수집정책, 장서개발계획, 접근정책, 전시·대출정책, 디지털 보존정책, 디지털화 기준, 수선·보존정책과 호환되는 정책임을 명시하였다.

둘째, 다른 도서관과 달리, 수집기준은 간략하며 실무에 적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존재한다.

셋째, 도서관이 장서개발 차원에서 수용하지 않는 자료 범위를 상세하게 제시한 점도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넷째, 정책문서의 리뷰 내지 개정주기를 2년

으로 명시하였다.

2.2.2 베를린주립도서관(Staatsbibliothek zu Berlin)

독일 수도에 위치하는 베를린주립도서관 장서 구축원칙(Grundsätze des Bestandsaufbaus)은 〈표 6〉과 같이 5개 영역(일반원칙, 주제 프로파일, 역사적 자료의 수집원칙, 특수장서, 정보자료)으로 구성되어 있다(Staatsbibliothek zu Berlin, 2019).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서구축 일반원칙에서는 지역적 보편성, 기술적 보편성, 시대적 보편성, 매체와 문헌형식의 보편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제 프로파일에서는 주제별(인문학 및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기술) 선택 및 수집기준, 언어 및 지역적 측면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특수장서의 수집범위, 선택기준, 중점

〈표 6〉 베를린주립도서관 장서구축원칙의 구성 및 주요내용

구성		주요 내용
일반원칙		- 지역적·기술적·시대적·매체와 문헌형식의 보편성 등 장서구축의 일반 원칙
주제 프로파일	인문학 및 사회과학	- 인문학 및 사회과학 자료의 세부분야별 선택 및 수집기준, 언어 및 지역적 측면
	자연과학 및 기술	- 자연과학 및 기술 자료의 세부분야별 선택 및 수집기준, 언어 및 지역적 측면
역사적 자료의 수집원칙		- 베를린을 포함한 전국적, 국제적 수준의 주요 역사자료의 수집에 대한 일반 원칙 - Rarasammlung(1501-1955년 자료로 장정과 표지가 역사·예술적 자료) 수집원칙
특수장서		- 필사본부서 컬렉션, 음악도서관, 지도부서 컬렉션, 동유럽 컬렉션, 동양 컬렉션, 동아시아 컬렉션, 공식간행물, 신문,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를 포함한 특수장서의 수집범위, 선택기준, 중점 분야, 자료유형, 지역 및 언어 측면
정보자료		- 서지자료 수집기준

분야, 자료유형, 지역 및 언어 측면을 기술하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지자료 수집기준을 제시하였다.

넷째, 특수장서를 필사본부서 컬렉션, 음악도서관, 지도부서 컬렉션, 동유럽 컬렉션, 동양 컬렉션, 동아시아 컬렉션, 공식간행물, 신문,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로 세분한 것은 다른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 제시된 것보다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2.3 일본과 대만의 대도시 공공도서관

2.3.1 도쿄도립도서관(東京都立圖書館)

도쿄도립도서관 자료수집방침(資料收集方針)은 〈표 7〉과 같이 4개 영역(목적, 정보서비스 자료수집, 보완서비스용 자료수집, 용어 해설)으로 구성되어 있다(東京都立圖書館, 2009). 구성체계 및 내용에서 주목할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구성체계 및 내용이 장서개발정책이 아닌 실무지침 수준이다.

둘째, 정보서비스를 위한 일반지침에서 자료유형을 도서, 축차간행물, 전자자료, 마이크로자

료, 시청각자료, 시각장애인자료로 구분하였다.

셋째, 시각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자료, 도서관 미정비지역에 보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명시한 점은 특이하다.

넷째, 자료수집방침과는 별개로 도쿄도립도서관 자료보존지침과 기증 신청자료의 접수에 관한 지침을 두고 있다.

2.3.2 교토부립도서관(京都府立圖書館)

일본 교토부립도서관 자료수집방침(資料收集方針)은 〈표 8〉처럼 5개 영역(기본방침, 수집자료, 수집방법, 수집 협의, 구체적 선정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료수집기준을 마련하였다(京都府立圖書館, 2016). 구성 및 내용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쿄도립과 달리 수집방침과 수집기준으로 나누었다. 기본방침은 부립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수집에 대하여 함축적으로 기술하였다.

둘째, 수집기준은 자료유형을 도서, 축차간행물, 영상·음향·전자자료, 장애인용 대상자료로 나누어 각각의 통칙과 세부자료에 적용하였다.

〈표 7〉 도쿄도립도서관 자료수집방침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목적		- 도쿄도립도서관 자료수집방침의 목적	
정보서비스 자료수집	기본방침	- 자료의 수집, 종류, 범위, 언어, 선택, 수집방법	
	자료별 일반 방침	도서	- 통칙 - 신간(참고서, 일반서), 기존 도서, 도쿄자료(정간물 포함), 관공청간행물(도쿄도 제외), 도서관 관계자료, 특별문고, 특수컬렉션, 아동·청소년도서, 외국어도서, 가제자료, 팸플렛 수집방침
		축간행물	- 통칙 - 신문, 잡지(팸플렛, 리플렛 포함), 연감·연보류 수집방침
		전자자료	- 전자자료의 수집방침
		마이크로자료 등	- 마이크로자료 등의 수집방침
		시청각자료	- 시청각자료의 수집방침
		시각장애인서비스 자료	- 시각장애인서비스 자료의 수집방침
		보완서비스용 자료수집	- 보완서비스를 위한 자료수집
용어 해설	- 도서관자료, 정보서비스자료, 도쿄자료, 특별문고 등		
별도 지침	- 도쿄도립도서관 자료보존지침 / 기증 신청자료 접수 지침		

〈표 8〉 교토부립도서관 자료수집방침과 자료수집기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자료수집방침		자료수집기준	
구성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기본방침	- 부민의 조사연구 거점 및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적합한 자료 수집 - 부내 도서관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시정촌립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자료 수집 - 교토부립 교토학·역채관(歴彩館)을 비롯한 문화시설과 연계한 수집 - 의견이 다양한 자료는 폭넓은 관점에서 수집	도서	- 공통 수집기준 - 교토 관련 자료의 수집기준 및 범위 - 외국어 도서 수집기준 - 일반도서의 주제별 수집기준
수집자료	- 수집자료 종류는 도서, 연속간행물, 영상·음향·전자자료, 장애인 자료 등 - 수집부수는 1부 원칙 - 수집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영구 보존	축간행물	- 공통 수집기준 - 교토 관련 잡지, 일반지, 전문지, 외국어 잡지, 신문의 수집기준
수집방법	- 구입, 기증 등을 통한 수집	영상·음향·전자자료	- 공통 수집기준 - 영상자료, 음향자료, 전자자료 수집기준
자료수집 협의	- 중요한 사항은 수집위원회에서 협의	장애인용 대상자료	- 큰활자 도서, 데이지자료, 점자자료 수집기준
자료선정의 구체적 기준	- 수집자료 선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자료수집기준에 따름		

셋째, 도서 수집기준은 NDC 주류로 나누어 상세하게 제시하였으며, 장애인자료는 큰활자도서, 데이지자료, 점자도서로 구분·제시하였다.

2.3.3 홋카이도립도서관(北海道立圖書館) 홋카이도립도서관 자료수집방침(資料收集方針)은 〈표 9〉처럼 11개 영역(목적, 기본방침, 수

〈표 9〉 홋카이도립도서관 자료수집방침과 수집기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자료수집방침		자료기준
구성	주요 내용	
목적	- 도립도서관·도서관센터, 참고도서관, 평생학습 거점·역할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수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	- 일반자료선정기준 - 북방자료선정기준 - 지원활동용자료선정기준 - 홋카이도립도서관 자료정리기준 - 홋카이도립도서관 자료정리기준제적세칙
기본방침	- 도서관의 사명과 수집방침	
수집자료 종류	- 일반자료(도서, 축차간행물, 시청각자료, 고령자·장애인 자료, 대출문고자료), 북방자료(도서자료, 축차간행물, 시청각자료, 서사자료, 소책자류, 정치화상자료, 지도자료, 행정자료, 특별컬렉션), 지원활동용 자료	
요청자료	- 시정촌립도서관 및 도민이 요청하는 자료선정 기준	
수집방법	- 구입, 기증, 배포, 기탁, 교환 등	
수집부수	- 1부 수집원칙과 복본(북방자료, 일반자료 중 도서관학 관계자료, 이용상 복본을 기대하는 자료) 수집기준	
자료보존	- 자료보존 기준 및 방법, 제작·폐기에 관한 사항	
자료센터로서의 역할	- 지역 자료센터로서의 역할에 따른 활동	
자료수집 조직	- 자료수집을 위한 위원회 설치	
개정	- 자료수집방침 및 자료선정기준의 개정 요건	
자료수집 계획	- 자료수집계획 수립, 점검, 평가	

집자료 종류, 요청자료, 수집방법, 수집부수, 자료보존, 자료센터 역할, 자료수집 조직, 개정, 수집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北海道立図書館, 2016). 이에 근거하여 자료선정기준(일반자료, 북방자료, 지원활동용 자료)과 정리제적기준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장서를 구축하고 있다. 수집방침의 구성 및 내용적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적 측면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자료수집방침을 근거로 자료수집계획이 수립되고 여러 선정기준(일반자료, 북방자료, 지원활동용 자료)을 적용하도록 체계화한 점이다.

둘째, 목적에서 도서관센터, 참고도서관, 평생학습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셋째, 기본방침에서는 평생학습 핵심시설로서 도민의 조사·연구에 유용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일상생활과 밀착된 자료에서 분야별 전문적 자료에서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또한 시정촌립도서관 등을 지원하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료, 홋카이도 역사·문화를 계승하여 새로운 문화창조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료, 일본도서관협회의 『도서관 자유에 관한 선언』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하도록 명시하였다.

넷째, 수집할 일반자료 유형을 5가지(도서, 축차간행물, 시청각자료, 고령자·장애인 자료, 대출문고자료)로 대별하였으며, 일본 최북단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북방자료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3.4 이바라키현립도서관(茨城縣立圖書館)

일본 간토지방 북동부에 위치하는 이바라키현립도서관 자료수집기본방침(資料收集基本方針)은 〈표 10〉과 같이 6개 영역(목적, 기본방침, 수집대상자료, 수집점수, 수집방법,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료선정기준

〈표 10〉 이바라키현립도서관 자료수집기본방침과 자료선정기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구성	주요 내용
자료수집 기본방침	목적	-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기본방침	- 내관자 서비스 충실과 시정촌립도서관·유관기관 지원 등에 부합하는 장서구성 - 현립도서관으로의 기대와 책무에 부응하기 위한 주요 자료 수집 - 향토자료에 충실한 이바라키 도서관으로서의 특성 및 기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수집 - 시정촌립도서관이 수집하기 곤란한 전문·학술자료 및 조사연구용 참고자료의 적극적 수집 - 장기적으로 성숙한 도서관 이용자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자료 수집 - 국제화·정보화·고령화 등 사회동향과 이용수요를 감안한 연도별 중점분야 지정과 수집
	수집대상자료	- 도서, 연속간행물 등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매체자료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집하고, 외부 데이터베이스 등은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고려한 이용환경 정비
	수집접수	- 1점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향토자료, 이용도가 높은 자료, 보급용 도서, 참고업무에 필요한 자료,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는 복수 수집
	수집방법	- 구입, 기증, 위탁, 교환 등으로 귀중하고 필요한 자료의 광범위한 수집
	부칙	- 시행 연도, 개정 연도
자료선정 기준	관내 서비스용 자료	- 일반자료(국내서) 공통 및 분야(주제)별, 아동자료 및 아동도서 연구자료, 향토자료, 개인 및 단체 시청각자료 선정기준 - CD-ROM 선정기준
	보급용 도서	- 대출문고용 도서선정기준 - 독서회용 도서선정기준
	제작	- 공통 및 자료종류별 제작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茨城縣立図書館, 2015). 구성 및 내용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적 측면에서 기본방침에는 수집의 대상, 접수, 방법, 부칙을 간략하게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 자료선정기준에서 제시하였다.

둘째, 자료선정기준은 관내 서비스용 자료, 보급용 도서, 제작 및 용어의 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제작을 선정기준에 포함시켜 공통기준과 자료종류별 기준으로 나눈 점도 특이하다.

셋째, 관내 서비스용 자료는 6가지(일반자료, 아동자료, 아동연구자료, 향토자료, 시청각자료, CD-ROM), 보급용 도서는 2가지(대출문고와 독서회)로 구분하여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2.3.5 타이베이시립도서관(臺北市立圖書館)

타이완 수도의 타이베이시립도서관 관장발전정책(館藏發展政策)은 〈표 11〉과 같이 9개 영역(도서관 소개, 장서개발, 장서발전원칙, 자료선택, 자료수집, 장서유지·보호, 기대목표, 정책 제정·수정,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臺北市立圖書館, 2019).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서발전원칙에서 자료의 범위, 유형, 주제 및 깊이, 분관 장서의 특색, 특수장서 및 제한자료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둘째, 장서개발을 위한 장서의 심도를 수집 제외, 최저수준, 기본수준, 학습수준, 연구수준, 상세수준의 6단계로 제시하였다.

셋째, 자료선택의 범위, 통칙, 자료유형별(중문도서, 외국도서, 참고자료, 아동도서, 정부간

〈표 11〉 타이베이시립도서관 관장발전정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도서관 간략 소개	- 도서관 연혁, 조직편제, 목적·임무 및 서비스 대상 - 장서의 질적·양적 충실, 분관증축, 정보화서비스 강화, 미래 발전계획
장서개황	- 도서 및 시청각자료, 연속간행물 및 신문,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원을 포함한 장서 현황
장서발전원칙	- 장서자료의 범위와 유형 - 분관장서 특성화 주제, 장서심도 6단계(수집 제외, 최저수준, 기본수준, 학습수준, 연구수준, 상세수준), 장서 특색구축 원칙, 분관장서 특성화 설명, 제한 자료
자료선택	- 자료선택의 범위와 통칙, 자료유형별(중문도서, 외국도서, 참고자료, 아동도서, 정부간행물, 중문의 잡지, 시청각자료, 전자자원, 회색문헌) 선정원칙, 복본자료 선택·구입 원칙
자료수집	- 구입범위와 원칙, 교환원칙, 교환자원과 교환방식, 교환처리, 수증·기증 요청, 정부간행물 기탁
장서유지·보호	- 장서정리 및 수리 보수, 장서갱신, 장서평가, 장서폐기 기준, 장서이전
기대목표	- 장서개발의 기대 목표
정책 제정·수정	- 장서발전정책의 제정 및 수정 절차
부록	- 타이베이시립도서관 특수장서 수집 및 유지보호 원칙 - 타이베이시립도서관 각 분관 장서특색 일람표 - 장서발전 요강 - 타이베이시립도서관 기증도서자료 처리 요점 - 타이베이시립도서관 성인교육자원센터 장서선택 원칙 - 타이베이시립도서관 회소 이용도서 보관 원칙

행물, 중문 외 잡지, 시청각자료, 전자자원, 회색 문헌) 선정원칙, 선정도구를 제시하였다.

넷째, 장서 유지·보호에서는 정리 및 수리·보수, 장서갱신과 평가, 폐기기준을 제시하였다.

2.3.6 가오슝시립도서관(高雄市立圖書館)

타이완에서 세 번째 대도시에 위치하는 가오슝시립도서관 관장발전정책(館藏發展政策)은 〈표 12〉처럼 8개 영역(서문, 도서관 소개, 장서 현황, 장서발전 중점, 자료선정, 자료수집, 장서 평가 및 유지관리, 정책의 제정·수정)으로 구성되어 있다(高雄市立圖書館, 2016). 구성체계 및 내용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소개에 특이하게 도서관 조직 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장서발전 중점 부분에서 59개 분관을 대상으로 특화장서를 표로 제시하였다.

셋째, 장서수준은 미소장, 기초수준, 일반수준, 연구수준의 4단계로 설정하고 분관과 주제를 매트릭스 표로 구성하여 각각의 수집수준을 제시하였다.

넷째, 장서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구분한 후 방법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2.4 한국의 주요 지역대표도서관

2.4.1 서울도서관과 미추홀도서관

먼저 서울시를 대표하는 서울도서관에는 공식화된 장서개발정책이 없다. 그 대신에 총 14 조, 별표 3개(자료선정기준, 기증자료 처리기준, 폐기·제적기준)로 구성된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서울도서관, 2017). 장서 관련 기준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표 13〉과 같다.

〈표 12〉 가오송시립도서관 관장발전정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서문		- 장서발전정책의 목적
도서관 소개		- 도서관의 연혁, 조직, 분관
장서현황		- 자료유형별 현황 및 각 분관의 특수장서
장서발전 중점		- 장서분석 및 조정, 분관·문학관·문화센터 강화를 통한 일반 핵심장서 보강, 도서관별 특화장서 강화, 비도서자료 수집 강화
자료선정	선택업무 직책	- 선택업무 담당부서 및 직원
	독자추천 의견에 대한 처리	- 이용자의 자료 추천방법 및 처리절차
	자료별 선정원칙 및 선택 도구	- 중문서, 서양서,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디지털자원으로 구분한 선택 및 업무분담 원칙과 선택도구
	장서수준	- 장서수준을 4단계(미소장, 기초수준, 일반수준, 연구수준)로 제시
	복본 원칙	- 복본수집 원칙
소장 제외 자료		- 장서에 포함되지 않는 책과 자료
자료수집	구입, 기증	- 예산배분, 도서·정기간행물의 구입절차 및 방법, 기증자료 수집
장서평가 및 유지관리	장서평가	- 장서의 양적 및 질적 평가 방법
	장서 유지관리·점검	- 장서 유지관리 및 장서점검 방법
	회귀도서 관리	- 회귀도서 관리 방법
	연속간행물 보존원칙	- 연속간행물 보존원칙
	장서 제적·폐기	- 장서제적·폐기기준
장서발전정책 관리		- 정책의 제정 및 수정

〈표 13〉 서울도서관과 미추홀도서관 장서개발 관련 규정·정책(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서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미추홀도서관 장서개발정책(안)	
구성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장서개발을 위한 자료의 선정·수집·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규정	개요	- 추진방향: 자료수집 및 보존에 최우선, 균형 장서개발, 장서구성 최적화, 유연성 확보, 각종 기준 마련
제2조(용어정리)	- 선정, 수집, 이관, 제적, 폐기	사회·이용자 분석	-
제3-9조 (자료선정위원회)	- 기능, 구성, 회의, 간사, 서면결의, 운영규칙	장서개발 기준과 확충목표	- 근거(「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종합발전계획, 한국도서관기준)와 장서확충 목표
제10조-11조(기준)	- 선정기준, 기증자료 처리기준	주제별 집서	- 10개 주류로 제시
제12조(장서점검)	- 장서점검 계획 수립	세부지침	- 수집방법별, 자료유형별 세부지침
제13조(교환과 이관)	- 복본, 소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		- 장서점검·통계관리·보존서고 이관기준, 일반적·주제별 폐기기준
제14조(폐기, 제적)	- 대상자료	-	-
부칙	- 시행일	-	-

첫째, 자료선정기준은 별표 1에서 6개 기준(일반적 선정기준, 고문헌과 귀중(회귀)서, 보존기준, 비도서자료, 이용자 희망도서, 수증·

기증 및 교환자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일반적 선정기준의 사회(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 기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에서 발행

한 자료, 국내외에서 발간된 서울시에 관한 자료의 최우선 입수)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장서개발 책무에 관한 것이다.

둘째, 기증자료 처리기준은 별표 2에서 6개 기준(목적, 정의, 기증절차, 선정 및 제외 기준, 기증자 예우, 선정 제외 기증자료 처리)을 제시하고 기증한 자료, 기증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을 두고 있다.

셋째, 자료 폐기·제적 기준은 별표 3에서 5개 기준(일반적 기준,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회수불능 또는 소재 미확인 자료, 주제별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주제별 기준은 3개 영역(총류,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대별하여 각각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인천시 미추홀도서관도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이 없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2016년에 「장서개발정책(안)」을 수립하였다(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2016). 총 6장(개요, 지역사회 및 이용자 분석, 장서개발 기준 및 장서확충 목표, 주제별 집서 수준, 장서개발 세부지침, 자료보존·관리·제적·폐기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서개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과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자료구입 예산배분과 장서구성 기준은 ‘한국도서관 기준’, 주제별 집서 수준은 KDC 6판을 근거로 삼았다.

둘째, 장서개발 세부지침은 수집방법(구입, 기증, 납본)과 자료유형(일반도서, 어린이·청소년자료,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특수도서, 다국어자료를 포함한 국외 도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전자자료, 고서 포함의 귀중자료, 희망도서)으로 구분·제시하였다. 특히 자료구입 일

반원칙에 광역시 단위의 종합적 및 망라적 수집을 명시하였고 기증자료 등록·미등록 기준, 관리, 기증자 예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자료(행정간행물, 연속간행물, 참고자료)의 납본 제출과 절차(기간, 형태 및 매수)를 규정하였다.

셋째, 보존·관리 및 제적·폐기 세부지침에서 전자는 장서점검, 자료통계관리, 보존서고 이관을 포함한 자료보존을, 후자는 일반적 및 주제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4.2 충남도서관과 무등도서관

먼저 충남도서관도 장서개발정책 문서가 없지만 실무에 적용하는 ‘충남도서관 장서개발 지침(안)’이 있다(충남도서관, 2018). 2018년에 마련된 지침은 총 9장(개요, 목적 및 필요성, 봉사대상 현황, 장서개발 기준 및 목표, 자료관리, 장서구성, 장서평가, 장서폐기, 갱신주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무등, 사직, 신수로 구성된 광주시립도서관을 대표하는 무등도서관도 2019년 ‘장서개발지침’을 수립하였다(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2019). 그러나 전술한 충남의 지침과 거의 비슷하다. 양자에서 발췌한 <표 14>를 중심으로 내용과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침의 목적은 장서구성의 균형, 정책의 일관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각종 기준 마련, 자료 선택자의 개인적 편견 배제, 자료 특성화, 기본방침 역할 등이다.

둘째, 장서구성은 기본방침, 자료구성 비율, 자료유형 및 주제별 선정기준, 특화자료 선정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본방침 아래 일반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모든 자료와

〈표 14〉 충남도서관과 무등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충남도서관 장서개발지침(안)		광주시립(무등)도서관 장서개발지침	
구성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개요	- 근거, 적용 기간·대상, 주요 내용(목적, 장서확충 및 자료구성, 특성화 등)	목적	- 장서 균형 및 일관된 정책 수립 - 예산의 효율적 사용, 장서조직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평가 수단, 장서 균형유지, 출판량 급증 대처, 커뮤니케이션 수단, 도서관 협력 유발, 공간문제, 공중에 대한 홍보, 이용자들의 요구 파악, 자료폐기 기준, 학문지원도구 그리고 선택자 개인적 편견 배제 등
목적 및 필요성	- 장서균형 및 일관된 정책 수립 - 효율적 예산집행, 자료선정·평가·관리·폐기기준 마련 등 - 지역대표도서관, 내포신도시 교육·독서 문화 제고와 자료 특화 - 매년 장서확충 계획의 기본방침 역할		
봉사대상 현황 분석	-	봉사대상 분석	-
장서개발 기준 및 목표	- 근거(『도서관법 시행령』, 『한국도서관기준』, 전국도서관 평가기준)와 장서확충 목표	지침 결정	- 활용기간: 2019. 1-2021. 12 - 장서개발기준(기본장서, 비도서, 연속간행물, 구입절차 및 방법)
자료의 관리	-	자료관리	-
장서구성	- 구성비, 기본방침, 자료유형별·주제별 선정기준, 특화자료 선정	자료선정기준	- 원칙, 유형·주제·수집별 선정기준, 특성화 자료 선정(수집), 선정 제한, 도구
장서평가	- 장서점검, 비용·복본자료 처리 등	장서평가	- 구성비, 이용자, 이용통계 분석
장서폐기	- 목적, 시기, 기준, 절차, 폐기 처리	장서폐기	- 폐기기준 - 불입: 1. 법적 근거, 2.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지침 - 별표: 1. 폐기·제적기준, 2. 연속간행물 보존기간
갱신주기 및 담당자	- 5년 주기로 개정		

당해 지역의 향토·행정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각종 정보매체를 광범위하게 수집·소장하도록 규정하였다. 특성화 자료선정(수집)에서는 지역 향토자료 수집·관리를 제시하였고, 특히 충남은 백제학 자료와 도내 발간자료, 충남 및 시군에 관한 충청학 자료의 수집·관리를 명시하였다.

셋째, 장서폐기에서는 목적, 시기, 일반적 및 주제별 기준(인문사회, 응용과학, 신문·잡지, 참고자료, 비도서자료, 기타, 제외자료), 처리방법(매각, 기증, 교환, 판매)을 규정하였다.

넷째, 충남의 지침은 갱신주기는 5년으로 설정한 반면에 광주시립은 명시하지 않았다.

2.4.3 경북도서관, 울산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먼저 2019년 11월 개관한 경북도서관은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이 없다. 그 대신에 『경북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면 〈표 15〉와 같이 총 17조, 별표 3개(자료 선정기준, 자료기증 처리기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로 구성되어 있다(경북도서관, 2019b). 그 가운데 장서개발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기준은 별표에서 5개(일반적 선정기준, 보존기준, 비도서자료, 이용자 희망도서, 수증·기증 및 교환자료)로 구성하였다. 특히,

〈표 15〉 경북도서관, 울산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자료수집 및 관리규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경북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울산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경남대표도서관 「장서관리 규정」	
구성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효율적 장서개발	제1조 (목적)	- 효율적 장서개발	제1조 (목적)	- 체계적·일관적 장서관리, 최적 유지
제2조 (정의)	- 선정, 수집, 이관, 폐기, 제적, 기증자료	제2조 (정의)	- 선정, 수집, 이관, 폐기, 제적, 기증자료	제2조 (정의)	- 선정, 수집, 이관 제적, 폐기
제3조-11조 (자료선정위원회)	- 설치, 기능, 임기, 회의, 간사, 서면결의, 수당 등, 운영세칙	제3조-11조 (자료선정위원회 설치)	- 설치, 기능, 임기, 회의, 간사, 서면결의, 수당 등, 운영세칙	제3조 (장서관리 기본방침)	- 주제별 균형, 어린이도서·특성화·대체자료 구성비
제12조 (자료선정기준) (별표1)	- 일반기준, 보존기준, 비도서, 희망자료, 수증·기증·교환자료	제12조 (자료선정기준) (별표1)	- 일반기준, 고서와 귀중본, 보존기준, 비도서, 희망도서, 수증·기증·교환자료	제4조 (자료선정)	- 일반적, 자료유형별, 주제별 기준, 제외기준
제13조 (기증자료)	- 별표 2(자료기증처리기준)	제13조 (이용불능자료)	- 별표 2(회수불능자료 제적)	제5조 (희망도서 처리)	- 신청방법 등
14조 (장서점검)	- 2년에 1회	제14조 (기증자료)	- 자료기증 동의서 등	제6조 (기증자료 처리)	- 자료기증서 등
15조 (교환·이관)	- 자료의 교환·이관 기준	제15조 (장서관리)	- 2년에 1회 점검	제7조 (장서관리)	- 정기적(시기는 별도로 정함)
제16조 (폐기·제적) (별표 2)	- 일반, 비도서, 회수불능·소재 미확인 자료, 주제별 기준	제16조 (자료의 교환과 이관)	- 자료의 교환·이관기준	제8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 일반, 제적·폐기대상 자료, 주제별 기준
제17조 (이용불능자료)	- 별표 3(제적 또는 재구입)	제17조 (자료폐기·제적) (별표 2)	- 일반, 비도서, 연간물, 회수불능·소재 미확인 자료, 주제	-	-
부칙	- 시행일	부칙	- 시행일	부칙	- 시행일

일반적 선정기준에서 경북과 시군, 기타 경북 소재 공공기관 발간자료와 국내의 경북 관련 자료를 최우선으로 입수하도록 명시하였다.

둘째, 기증자료 처리기준은 별표에서 5개 항목(목적, 기증절차, 선정 및 제외기준, 기증자에 대한 예우, 선정제외의 기증 자료처리)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폐기·제적기준은 5개 항목(일반적 기준,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회수불능 또는 소재 미확인 자료, 주제별 기준)으로 구성하였고, 주제별 기준은 학문영역으로 대별하였다.

다음으로 2018년 4월 개관한 울산도서관 역시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은 없다. 이에 『울산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면 〈표 15〉와 같이 총 17조, 별표 2개(자료

선정기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로 구성되어 있다(울산도서관, 2018). 그 가운데 장서개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선정기준은 별표에서 6가지(일반적 선정기준, 고서와 귀중본, 보존기준, 비도서자료, 이용자 희망도서, 수증·기증 및 교환자료)를 규정하였다. 특히, 일반적 선정기준에서 울산시와 각 기초자치단체, 기타 울산시 소재 공공기관이 발간한 자료와 국내외에서 발간된 울산에 관한 자료를 최우선 입수하도록 명시하였다.

둘째, 폐기·제적기준은 별표에서 5가지(일반적 기준,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회수불능 또는 소재 미확인 자료, 주제별 기준)로 구분하였고, 주제별로는 3개 영역(총류, 인문·사회

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년 2월 개관한 경남대표도서관도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이 없다. 이에 「경남대표도서관 장서관리 규정」을 분석하면 <표 15>와 같이 총 8조(목적, 정리, 장서구성 기본방침, 자료선정, 희망도서, 기증자료, 장서점검, 폐기 및 제적)로 구성되어 있다(경남대표도서관, 2018). 장서개발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서구성 기본방침은 주제별 장서의 균형 유지, 어린이도서(30% 내외), 특성화자료 및 장애인 대체자료(10% 범위 내), 비도서자료(자료 이용률 고려)에 대한 규정과 신간자료는 우선 구입하고 이용자 희망도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자료 선정기준에는 일반적, 유형별, 주제별(KDC 기준) 기준과 제외기준을 명시하였고, 희망도서 처리에는 신청방법, 처리과정, 구입 제외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기증자료 처리에는 처리방법과 등록·미등록 기준을 규정하였다.

셋째, 자료 폐기·제적기준은 범위와 일반기준, 대상자료, 주제별 기준(총류 및 참고자료, 인문·사회과학, 자연·기술과학, 비도서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경남대표도서관은 장서관리 규정과 별개로 「경남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규정」을 두고 있다. 총 14조(목적, 정의, 기능과 업무, 자료이관과 소유권, 자체수집 등, 자료점검, 수선복원 및 매체변형, 귀중도서의 지정 기준, 고서의 지정 기준, 제적·폐기, 열람, 열람의 제한,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서비스, 자료배송 및 회수)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비교와 제언

3.1 장서정책 구성체계 및 내용의 비교와 시사점

장서는 도서관을 대표하는 브랜드다. 자료의 요람(선택)에서 무덤(제적)까지를 계획·실천하는 장서관리의 요체는 장서개발이다. 그것은 사서가 수행하는 최초 전문직 업무이며, 도서관을 공공재로 각인시키는 보루다. 또한 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역할과 기능, 존재가치를 정당화하며 이용자 방문·접근을 유인하는 핵심인자이자 전략적 메뉴다. 이를 위한 정책문서가 장서개발정책이다. 주요 선진국 대도시 공공도서관 및 국내 지역대표도서관 정책을 비교한 <표 16>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첫째, 용어 및 업무과정 측면에서 장서개발정책에 포함되는 키워드는 선정과 수집, 구성과 개발, 관리다. 이들의 어의적 및 개념적 폭은 '자료선정 < 자료수집 < 장서구성(구축) < 장서개발 < 장서관리'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핵심은 장서개발이다. 이를 감안하여 7개관(뉴욕, 버지니아, 보스톤, 버밍엄, 타이베이, 가오슝, 미추홀)은 장서개발(발전) 정책으로 명시한 반면에 토론토는 자료선정정책, 베를린은 장서구축원칙, 일본 4개관은 자료수집방침, 충남과 광주시립은 장서개발지침을 사용하고 있다. 자료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장서개발정책 내지 장서관리정책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책문서로서의 적합성은 2001년 IFLA가 제시한 구성요소(서론, 비전·사명·목표

〈표 16〉 국내외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방침, 지침)과 규정의 체계 및 특징 비교

구분	정책 문서	서문	기본 지침	컨스펙터스 적용	특화 장서	선정(수집) 기준			제작·폐기 기준	장서 평가	개정 주기	
						일반	주제	유형				
미국	뉴욕주립	●	●	●	●	●	X	●	●	●	X	●
	버지니아주립	●	●	●	●	●	●	●	●	●	X	X
	보스톤	●	●	●	X	●	●	X	●	●	X	X
캐나다	토론토	▲	●	●	X	X	●	X	X	●	X	X
영국	버밍엄	●	●	●	X	X	●	X	X	●	X	●
독일	베를린주립	●	●	●	X	●	●	●	X	X	X	X
일본	도쿄도립	▲	●	●	X	●	●	X	●	X	X	X
	교토부립	▲	●	●	X	●	●	●	●	X	X	X
	홋카이도립	▲	●	●	X	●	●	X	●	●	X	X
	이바라키현립	▲	●	●	X	X	●	●	●	●	X	●
대만	타이베이시립	●	●	●	●	●	●	X	●	●	●	●
	가오슝시립	●	●	●	●	●	●	X	●	●	●	●
한국	서울	X	X	X	X	●	●	●	●	●	X	X
	인천미추홀	▲	●	●	X	●	●	●	●	●	X	X
	충남	▲	●	●	X	●	●	●	●	●	X	●
	무등(광주시립)	▲	●	●	X	X	●	●	●	●	●	X
	경북	X	X	X	X	●	●	X	●	●	X	X
	울산	X	X	X	X	X	●	X	●	●	X	X
경남대표	X	X	X	X	X	●	●	●	●	X	X	

등에 대한 일반적 및 서술적 진술, 주제 프로파일, RLG Conspectus 기반의 장서수준 지표, 정책 이행과 개정 주기)를 준거로 삼아 판단할 수 있다(IFLA, 2001). 이를 적용하면 주요 선진국 장서개발정책 또는 자료선정정책은 공식 문서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에 국내는 3개관(미추홀, 충남, 광주시립)이 장서개발정책(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성문화 이전이고, 나머지 4개관(서울, 경북, 울산, 경남)은 성문화된 정책이 없고 자료수집 및 관리 규정이 존재한다. 규정은 성문화된 정책문서를 실천하기 위해 제정하는 훈령이므로 주객이 전도된 양상이다.

셋째, 구성체계 측면에서 장서개발정책은 자료선정, 장서개발 및 구성, 보존관리, 제작·폐기를 아우르는 최상위 정책문서다. 따라서 정책

에 근거한 자료유형·수집방법·주제별 지침을 규정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료선정, 수집방법, 구입과 등록, 교환과 기증, 이관, 디지털화, 제작·폐기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환언하면 규정(조례 시행규칙, 훈령)은 정책의 후속 작업으로 법제화한 것이며, 각종 기준은 내부 실무지침이다. 이를 감안하면 선진국은 정책에 지침과 기준을 포함시킨 경우(뉴욕, 토론토, 버밍엄, 베를린)와 정책의 부록 내지 별도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한 경우(버지니아, 보스톤, 도쿄, 교토, 홋카이도, 이바라키, 타이베이, 가오슝)로 양분할 수 있다. 그러나 성문화된 정책이 없는 국내 도서관은 규정에 자료선정, 기증자료 처리, 제작·폐기 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별표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넷째, 서문은 정책수립 배경과 논거, 사명과

비전, 목적과 목표, 책임주체, 서비스 환경, 이념적 토대(공공도서관선언, 윤리강령 등), 관계 법령의 준수, 설명책임 등을 진술한 도입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토부립도서관을 제외한 선진국 정책은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반면에 국내는 초안임에도 3개관(미추홀, 충남, 광주시립)을 제외하면 서문이 없다. 자료수집 또는 장서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제1조(목적)는 제정 취지나 목적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다섯째, 미래 전략적 계획의 측면에서 장서개발정책은 기본지침을 충실하게 설정하고 자료 수집의지 및 장서 목표수준을 강도와 심도로 기호화하는 WLN Conspectus 기반의 집서 수준도 명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본지침은 대다수 도서관이 제시한 반면에 후자를 반영한 사례는 4개관(뉴욕, 버지니아, 타이베이, 가오슝)에 불과하며, 국내는 전혀 없다.

여섯째, 특화자료 개발은 대도시, 도도부현, 시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추진해야 할 정책적 업무인 동시에 비교우위 내지 상대적 강점을 드러내는 전략적 메뉴다. 대표적인 사례가 버지니아의 주 역사자료, 베를린의 라라컬렉션(Rarasammlung), 홋카이도의 북방자료, 타이베이의 특수장서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도서관도 권역 내에서 생산되는 행정간행물, 향토자료, 지역학 등에 대한 포괄적 수집은 명시하였지만 특화자료를 포함시킨 사례는 충남이 유일하다.

일곱째, 장서평가의 경우, 장서개발정책이 자료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포괄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될 수 있으나 3개관(타이베이, 가오슝, 광주시립)을 제외한 대다수 정책은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장서평가는 정책적 요소로

서의 성격이 약한 실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문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의 하나가 제·개정 주기다. 이를 명시한 경우는 6개관(뉴욕, 버밍엄, 이바라키, 타이베이, 가오슝, 충남)이다.

3.2 지역대표도서관 장서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2019년 12월 일부 개정된 현행 「도서관법」(법률 제16685호) 제23조에서 규정한 지역대표도서관의 법정 업무 중에서 장서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것은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지역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이관자료의 보존’이다.

이러한 법정 업무를 통해 시도를 대표하는 지식정보총괄센터, 정책도서관, 지원협력센터, 공동보존서고, 지식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단초인 동시에 핵심메뉴가 장서개발이다. 이를 위한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의 전반적 목적 및 목표와 연계한 장서관리의 기본지침이고, 장서실무의 체계성, 일관성, 연속성을 보증하는 관리도구이며, 서비스 대상이나 모체기관에 장서개발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수단이다(윤희운, 2020, p. 147).

따라서 지역대표도서관은 어떤 원칙과 전략을 기반으로 당대 및 후대의 지식정보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서개발에 주력할 것 인지를 성문화하고 인터넷 및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납세주체인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홍보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함의는 실무지침을 아우르는 시도 수준의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시도 내의 모든 공공도서관

이 수정과 침삭을 통해 맞춤형 장서개발정책을 수립·적용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장서개발 정책은 없고, 지침 내지 규정도 내용이 부실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지역대표도서관이 수립·적용해야 할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과 구성체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원칙은 자료수집력 강화, 장서개발 충실화, 장서구성의 편향성 최소화, 장서보존 최적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방법의 다양화, 대상자료의 다품종화, 인쇄자료의 충실한 개발, 디지털 자료의 전략적 개발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양한 개발방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수집력이 약화되고, 다품종화를 외면하면 접근·이용의 선택지가 축소되며, 인쇄자료 개발이 부실하면 핵심장서의 공동화로 본질적 정체성이 이동치고, 디지털 장서개발에 소홀하면 지식생태계 주변부로 내몰릴 것이며, 장서구성의 편향성을 방지하면 정보격차를 유발하고, 보존관리가 허술하면 디지털 아바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구성체계는 10개 영역(서문, 장서개발 주체와 방법, 장서개발 기본원칙, 수집방법별 개발지침, 자료유형(매체)별 개발지침, 주제별 개발지침, 취약계층별 개발지침, 연계·협력지침, 보존관리 및 공동보존서고 지침, 정책문서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과 3개 세부지침(아날로그 장서개발, 디지털 장서개발, 보존관리)으로 구성하거나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체계를 반영한 장서개발정책이 문서화될 때 미래 장서개발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참조, 선택지침과 각종 세부기준을 제공하는 교육훈련 도구, 체계적 장서정책을 외부와

인터넷에 홍보하는 유연적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외 대도시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안) 및 규정을 분석·비교하고 제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분석한 결과, 용어는 7개관(뉴욕, 버지니아, 보스톤, 버밍엄, 타이베이, 가오슝, 미추홀)이 장서개발(발전) 정책으로 명시한 반면에 일본 4개관은 자료수집방침, 충남과 광주시립을 장서개발지침을 사용하였다. IFLA의 장서정책 구성요소를 준거로 삼으면 선진국 장서개발정책은 공식문서에 부합하는 반면에 국내는 지침 수준이거나 규정에 불과하였다.

둘째, 구성체계 측면에서 선진국은 정책에 지침과 기준을 포함시키거나 부록 내지 별도로 제시한 반면에 국내는 규정에 원칙을 명시하고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있다. 서문의 경우, 대다수 선진국 도서관은 제시하였으나 국내는 거의 없었다. 기본지침은 대다수가 제시하였으나, WLN Conspectus 기반의 집서수준은 일부(뉴욕, 버지니아, 타이베이, 가오슝)만 명시하였다.

셋째, 특화자료 개발은 버지니아 주 역사자료, 베를린 라라컬렉션(Rarasammlung), 홋카이도 북방자료, 타이베이 특수장서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행정간행물, 향토자료, 지역학 등의 포괄적 수집을 명시하였으나, 충남을 제외하면 특수장서 내지 특화자료가 포함된 사례는 없었다. 장서평가는 3개관(타이베이

이, 가오슝, 광주시립)을 제외한 대부분이 제외하였고, 개정주기는 6개관(뉴욕, 버밍엄, 이바라키, 타이베이, 가오슝, 충남)이 명시하였다.

넷째, 지역대표도서관이 「도서관법」에 규정된 '시·도 단위의 종합적 자료의 수집·보존,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지원 및 이관자료 보존' 업무를 수행하여 시도를 대표하는 지식정보총괄센터, 정책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지식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려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장서개발정책을 수집·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원칙은 자료수집력 강화, 장서개발 충실화, 장서구성의 편향성 최소화, 장서보존 최적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구성체계는 10개 영역(서문, 장서개발의 주체와 방법, 장서개발 기본원칙, 수집방법별 개발지침, 자료유형

(매체)별 개발지침, 주제별 개발지침, 취약계층별 개발지침, 연계·협력지침, 보존관리 및 공동보존서고 지침, 정책문서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과 그것에 근거한 3개 세부지침(아날로그 장서개발, 디지털 장서개발, 장서 보존관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까운 장래에 모든 시도가 지역대표도서관 체제를 가동한다. 지역 공공도서관을 위한 우산적 역할, 컨트롤 타워, 정책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현 실무지침을 정책문서로 격상시켜야 한다. 도서관은 장서 기반의 문화기반시설이기 때문이다. 장서개발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시도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인식 전환과 전략적 사고가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청 (2015). 경기도 대표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및 운영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
- 경남대표도서관 (2018). 경남대표도서관 장서관리 규정.
https://lib.gyeongnam.go.kr/index.lib?menuCd=DOM_000000207004000000
- 경북도서관 (2019a). 경북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연구. 예천: 경상북도.
- 경북도서관 (2019b). 경북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ew.jsp?lawsNum=47000016014003&scType=title&scValue=경북도서관&isClose=0&kind=1
- 고양시 (2015). 고양시 도서관 장서개발정책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고양시: 고양시 도서관센터 도서관정책팀.
-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2019). 장서개발지침. 내부자료.
- 서울도서관 (2017).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https://lib.seoul.go.kr/rwww/html/ko/guideInfo.jsp>
- 서울특별시 (2019). 서울시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 서울: 서울도서관.

- 울산도서관 (2018). 울산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울산: 울산도서관.
<https://library.ulsan.go.kr/page/introduction/operationProvision.do>
- 윤희운 (2020). 장서관리론. 완전개정 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2016). 장서개발정책(안). 내부자료.
- 장덕현 (2017). 공공도서관 개관장서 구축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303-320.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12.303>
- 충남도서관 (2018). 충남도서관 장서개발 지침(안). 내부자료.
- 京都府立図書館 (2016). 京都府立図書館資料收集方針.
https://www.library.pref.kyoto.jp/?page_id=8775
- 東京都立図書館 (2009). 東京都立図書館資料收集方針.
<https://www.library.metro.tokyo.jp/guide/uploads/15a10a.pdf>
- 北海道立図書館 (2016). 北海道立図書館資料收集方針.
<https://www.library.pref.hokkaido.jp/mobile/web/about/qulnh000000001e1-att/qulnh000000001f0.pdf>
- 茨城縣立図書館 (2015). 茨城縣立図書館資料收集基本方針.
https://www.lib.pref.ibaraki.jp/gaiyo/kisoku/files/kihon_housin.pdf
- 高雄市立圖書館. (2016). 館藏發展政策.
<https://www.ksml.edu.tw/form/index.aspx?Parser=2,3,82,28>.
- 臺北市立圖書館 (2019). 館藏發展政策.
https://tpml.gov.taipei/News_Content.aspx?n=2F48EF4A3CE5E062&s=02262B67D4160831
- Boston Public Library (2013). Boston public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https://d4804za1f1gw.cloudfront.net/wp-content/uploads/sites/30/2017/01/30081802/collectiondev_policy.pdf
- Douglas, C. S. (2011). Revising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Journal of Electronic Resources in Medical Libraries*, 8(1), 15-21.
<https://doi.org/10.1080/15424065.2011.551487>
- IFLA (2001). Guidelines f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using the conspectus model.
<https://www.ifla.org/files/assets/acquisition-collection-development/publications/gcdp-en.pdf>
- Library of Birmingham (2017). Birmingham archives & collections development policy.
www.birmingham.gov.uk
- New York State Library (2013).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the New York state library.
<http://www.nysl.nysed.gov/library/policy/cdp/toc.htm>

- Osborne, S. (2006). Community consultation and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in medium-sized new zealand public libraries. *Libri*, 56(2), 73-82.
- Staatsbibliothek zu Berlin (2019). Grundsätze des bestandsaufbaus.
<https://staatsbibliothek-berlin.de/sammlungen/erwerbungsprofil/>
- The Library of Virginia (2007). Collection development and collection management guidelines.
<https://www.lva.virginia.gov/about/policies/colldev061107.pdf>
- Toronto Public Library (2016). Materials selection policy.
<https://www.torontopubliclibrary.ca/terms-of-use/library-policies/materials-selection-policy.jsp>

<p>•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p>
--

- Chang, D. H.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founding collection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303-320.
- Chungnam Library (2018).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Internal Document).
- Gwangju City Mudeung Library (2019).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Internal Document).
- Gyeongbuk Library (2019a). Gyeongbuk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tudy. Yecheon: Gyeongsangbuk-do.
- Gyeongbuk Library (2019b). Regulations on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Gyeongbuk library.
-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2015). A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nd operation plan for Gyeonggi-do representative library. Suwon: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 Gyeongnamdaepyo Library (2018). Regulations on library collection management of Gyeongnamdaepyo library.
- Hokkaido Prefectural Library (2016). Material collection policy of Hokkaido prefectural library.
- Ibaraki Prefectural Library (2015). Basic collection policy of Ibaraki prefectural library.
- Incheon Metropolitan City Michuhol Library (2016).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Proposal). (Internal documents).
- Kaohsiung City Library (2016).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Kaohsiung City library.
- Kyoto Prefectural Library (2016). Material collection policy of Kyoto Prefectural library.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9). A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Seoul public libraries. Seoul: Seoul Metropolitan Library.
- Seoul Metropolitan Library (2017). Regulations on library collection and management.

Taipei City Library (2019).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Taipei City library.

Tokyo Metropolitan Library (2019). Material collection policy of Tokyo metropolitan library.

Yoon, Hee-Yoon (2020). Library collection management, completed revised four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